

「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」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금천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봉수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이 소개한 「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」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.

본 청원 건은 금천구 주민들이 과거 불합리한 종세분화로 인해 40년 이상을 노후화된 주택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청원입니다.

해당지역인 금천구 독산동 992번지 일대와 시흥동 3번지 일대는 2002년 종 세분화 당시 현장 확인도 않은 채 도면상으로만 작업을 한 결과, 1998년 완공된 개설도로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6m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종 구분을 하였고,

금천구 금하마을은 2007년 경기도 고시에 의거 하나의 블록단위 마을인 광명시 소하동과 6~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광명시 소하동은 제2종 일

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, 금하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금하마을 주민들은 30여년 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관련 건축법으로 현 건축물 규모로 재건축도 못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보면서 전전공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불합리한 종세분화 이후 2003년도 공고 시에 25개 자치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자 서울시에서는 민원을 달래기 위해 매 5년마다 종세분화 재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.

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층수 제한은 두되, 과거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6m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 간 갈등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.

만일 본 청원이 받아들여져 해당지역이 종 상향된다면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것이며, 주민편익시설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규모 공사로 인한 서민생활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, 그리고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청원을 제출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청원 건을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